

7월 8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7월 8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타이슨 한방에’ 美증시 2% 급락	뉴욕증시가 7일(현지시간) 큰 폭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음.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둔 경계감과 더불어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감이 부담으로 작용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161.27포인트(1.94%) 하락한 8,163.6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1.23포인트(2.31%) 떨어진 1,746.17을,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17.69포인트(1.97%) 하락한 881.03을 각각 기록했다. 뉴욕증시는 약세로 출발, 장중 낙폭을 조금씩 넓히며 일중 최저점으로 거래를 마감했음. 특히 미 행정부의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위원인 로라 타이슨 UC버클리대 교수가 2차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경기회복이 늦춰질 것이란 우려감이 크게 불거졌음. 내일부터 본격화하는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경계감도 투자심리를 움추리게 했음. 경기 불안감으로 국제유가가 닷새 연속 하락하며 배럴당 62달러선으로 밀려난 반면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미 국채 가격과 미 달러화 가치는 오름세를 나타냈음.
국제유가 닷새째 하락	국제유가가 5일 연속 하락세를 보인 영향으로 에너지 관련주가 약세를 면치 못했음.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감과 지난주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증가했을 것이란 관측이 부담으로 작용했음.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8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1.12달러(1.75%) 하락한 62.93달러로 마감했음.
경기회복 지연 우려감.. 로라 타이슨 "2차 부양책 필요하다"	미 행정부의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위원인 로라 타이슨 UC버클리대 교수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지난 2월 승인된 7,870억달러의 경기부양책 규모는 너무 적다"며 "미국 경제는 경기부양책을 마련할 당시 추정보다 더 아픈 병자"라고 말했음. 그는 "경기부양책이 기대에 가까운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3분기와 4분기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너무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예상보다 250만명 많은 일자리를 잃었다"고 지적했음. 타이슨 교수는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초점을 둔 2차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될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투자심리에 부담을 줬음.

제목	주요 내용
베이징車 "오펔 인수뎀 중국 공장에 20억弗 투자	베이징차는 지난 주말 6억6,000만유로(9억2,300만달러)의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26억4,000만유로의 정부 보증을 요구. 또 GM의 오펔 지분율을 49%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경쟁자들 중 가장 관대한 것. 오펔 인수전에서 캐나다 자동차 부품 업체인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차와 미국계 사모펀드 리플우드 의 자회사인 벨기에의 RHJ가 구속력이 없는 인수 의향서(Non binding offer)를 제시, 인수전은 가열되고 있는 모습임.
IMF, 韓 올해·내년 성장률 1%p씩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은 7일 "한국 경제가 올해 -3% 역성장한 뒤 내년에는 2.5%의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기존의 성장률 전망치를 1%p씩 상향 조정. 또 "내년에도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전망되는 만큼 현재의 (확장적) 정책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IMF는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국내총생산(GDP) 성장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며 "한국 경제는 바닥을 쳤고, 유동성 위기와 신용경색을 현명하게 피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수출 고용창출 효과 갈수록 악화.."성장산업 육성 절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의 고용창출 능력의 약화가 2007년에도 지속. 2007년중 소비, 투자, 수출 10억원당 취업유발인원은 각각 17.1명, 13.1명, 9.4명으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특히 수출은 2000년 15.3명, 2006년 9.9명을 나타내 소비(2000년 21.4명, 2006년 17.3명)와 투자(2000년 15.0명, 2006년 13.5명명)에 비해 크게 하락. 한은은 "수출의 취업유발계수가 소비와 투자에 비해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것은 주력 수출상품인 기초소재 및 조립가공제품의 수입 중간재 투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포스코, `녹색경영` 속도 낸다	녹색성장은 정준양 회장의 취임일성 중 하나로, 취임 직후 회장 직속기구로 녹색성장추진 사무국을 신설해 각종 친환경 사업 등을 총괄토록 한 바 있음. 정 회장은 "범포스코 녹색성장위원회 출범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과 환경경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철강산업에서의 윤리경영은 바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생각으로 환경경영을 통해 새로운 21세기 윤리경영을 뿌리내리도록 하자"고 강조. 한편, 이날 범포스코 녹색성장위원회는 포스코의 녹색성장 비전을 'Global Green Growth Leader'로 명명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